

개업집

간성읍 민들레 막국수

토종민들레 사용·영양만점



지난달 간성읍에서 문을 연 민들레 막국수집.

지난 달 17일 간성 재래시장 내에 '민들레 막국수' 집이 개업했다.

민들레 막국수는 메밀을 주재료로 하는 일반 막국수와 달리 민들레 엑기스를 넣어 면을 만들어 색다른 맛을 내고, 건강에도 영양만점이다.

특히 이 집에서 사용하는 토종 민들레는 속초시 노학동에 위치한 '설악산 흰 민들레농장'에서 직접 재배해 공급받는 것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토종 민들레는 간질환 예방과 산모들의 수유촉진에 좋고,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며 기침예방, 해열작용, 유방 염증 치료, 피를 맑게하는 정혈작용, 항산화작용,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혈당조절로 당 수치를 저하시키는 효능도 있다.

민들레 막국수 신주현 대표는 "간성읍에서 다년간 고기집 부부회관을 운영하다, 이번에 장소를 옮기고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며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집의 주요 메뉴는 민들레 막국수와 민들레 냉면으로 가격은 6천원이다. 또 편육(1만5천~2만원)과 명태찜(20,000~35,000원)도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다. <전화 : 681-0205> 원광연 기자

□ 전남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이정양 연구사 전화인터뷰

“죽은 가지 확인해 잘라줘야”

도원3리 녹차 문제 ... 입지선정 중요

우리나라 녹차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전남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 이정양 연구사는 지난 8일 “녹차가 잎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강추위로 가지가 얼어버렸거나, 수분이 부족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며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수분이 증발해 수분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도원3리 녹차 재배단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보성도 올해 병해가 있었으며, 70%는 복원됐지만 아직도 잎이 나지 않는 나무들이 더러 있다”며 “도원3리

의 경우는 보다 심각한 경우로 생각되며,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연구사는 특히 “지상부가 다 죽었다고 해도 그루터기는 살아있을 수가 있다”며 “시급한 것은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지를 절단해 수액이 나오는 부분은 놔두고 바짝 마른 부분은 잘라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쪽에 있는 산학리는 녹차가 잘 되고 남쪽에 위치한 도원3리 녹차는 잎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고성군내에서 남쪽이나 북쪽이라는 중요하지 않으며, 바람

을 잘 막아주는 곳에 입지했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성이나 경남 하동의 녹차단지들은 대부분 바람을 막아주는 산비탈에 위치해 있다”고 했다.

이 연구사에 따르면 현내면 산학리는 입지가 좋은 곳이고, 토성면 도원3리는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는 결론이다.

그는 “옛 문헌에 동해안 고성군과 황해도에서도 녹차를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성군이 녹차 재배지역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배단지의 입지를 잘 선정해야 하고,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오호리 어촌계 전복 방류

고성군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죽왕면 오호리 어촌계 해역에서 전복 4만 마리를 방류했다.

원광연 기자

아모레 카운셀러 모집

여성이라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모레 카운셀러는  
사랑스러운 아내,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Counseling AMORE No.1 counselor



카운셀러 상담원 박옥순

017-767-1226  
아모레 설악점

- 소득** 월평균 100만원 이상 소득 가능  
지부장으로 승진시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능
- 판매** 고기능성 상품 취급, 판매기법 과학화, 다양한 판촉지원
- 교육** 고객에게 신뢰받는 미용전문가로 육성
- 승급**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팀장, 부장, 지부장, 수석지부장으로 승급
- 복지**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등 지원

